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4~12/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명상가붓다의삶	아날라요/김종수	불광출판사
2	인간붓다:신화와설화를걷어낸율장속붓다의참모습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3	위빳사나수행28일	자나까비왐사/케마	한국빠알리성전협회
4	들숨날숨에마음챙기는공부(초기불전002)*개정판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불교와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21)불교의지혜와서양의과학이만나다	엘런 윌리스 편집	운주사
6	불멸(3)아무래도아무렇지않은	이각	지혜의눈
7	불멸(1)영원한지금의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8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생각사용설명서(정신과의사가들려주는)	전현수 지음	불광출판사
10	지금이순간을살아라(개정판)	에크하르트톨레	양문

책세상

스승 미당 향한 헌정…제자는 '미당학' 꿈꾼다



서정주 학파 1 · 2권
윤재웅 지음
동국대 출판부
각권 2만원



질마재 이야기
윤재웅 지음 · 박성기 사진
동국대 출판부
1만9800원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최근 스승 미당 서정주를 연구한 학술서 〈서정주 학파(전 2권)〉와 문학 로드 에세이 〈질마재 이야기〉를 내놨다. 윤재웅 총장은 미당의 마지막 제자이자 수제자였다.

윤재웅 총장, 미당 서정주 관련 학술서 및 문학 여행기 출간해
미당 기원 찾는 '질마재 이야기'
'서정주 학파' 미당 연구 집대성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미당 서정주(1915~2000)는 한국 현대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이다. 그가 구사한 시어(詩語)들은 한국어를 어떻게 연마하고 벼리냐에 따라 이처럼 수려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한 평론가는 "미당의 시적 언어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언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미당 서정주는 1960년 동국대 교수로 부임해 '동국 문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던 중 말년에 들인 제자가 바로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다.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 국문과에 입학해 마지막 제자로 수학했다.

실제 윤재웅 총장의 술회에 따르면 "스승이 만년일 때 자택에서 함께 기거하는 복도 부렸다"고 한다. 해로한 아내와 사별한 슬픔을 달래주는 말벗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평평히 다지고 청소하며 편안하게 모셨다. 나이 든 스승과 나이 들어가는 제자 사이에 오간 이야기는 '팔할'이 시 아니면 시인에 관한 이야기였고 서로가 지닌 문향을 받들고 다독이면서 '금란지교'는 무르익었다. "부인이 떠난 지 두 달 만에 운명한 시인의 빈자리는 허망하지 않아 미래가 남았다"는 게 윤재웅 총장의 회고다.

모교의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여 년간 후학을 길러온 윤재웅 총장은 최근 스승 미당 서정주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연구서와 문학 여행기를 출간했다.

'서정주 학파' 탄생을 꿈꾸며

윤재웅 총장이 발간한 〈서정주 학파(전 2권)〉는 자신이 스승 미당 서정주의 문학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연구논문 11편을 담았다.

윤재웅 총장은 미당의 애제자이자 수제자로서 예술적 기재(器才)와 철학적 깊이를 동시에 성취한 스승의 작품에 집요하게 천착해 왔다. 제자는 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유품들을 정리해 동국대 도서관과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남현동 자택에 나눠서 보관했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는 전집 20권을 새로 출간했다. 미당기념사업회를 만들어 20년 가까이 추모행사를 열어왔다.

그렇기에 〈서정주 학파〉는 두텁고 단단한 또 하나의 헌정(獻呈)이다. 학자 자신의 존경과 열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영구적으로 기억해야 할 문화유산이자 지적 자산으로서 '미당학'을 구축하기 위한 큰 걸음이기도 하다.

〈서정주 학파〉는 미당 문학이 가지는 위대한 성취의 속살을 파고들고 뼈대를 탐구한다. 미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썼는지, 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는지를, 작품 하나하나의 역사적 배경과 내면의 기저를 조명하며 자세하고 꼼꼼히 서술한다.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미당학'의 새로운 출발을 꿈꾼다. '서정주'란 이름은 문학사에서 충분히 값지고 "언젠가 이 땅에 서정주 학파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다. 작은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학술논문을 한 자리에 모았다. 섬세함과 황홀함의 극치이자 모국어의 절정이 국민적 관심사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저자는 "한 시절 밤새워 미당을 읽어보라"고 한다. 미당을 오래 읽으면 삶을 예술로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다. 그리고 모두 '미당 서정주'가 되어 주길 바란다.

"앞서 가는 자, 나는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서정주 학파."

미당 서정주 문학 기원을 찾다

윤재웅 총장이 〈서정주 학파〉와 함께 발간한 〈질마재 이야기〉는 스승 미당의 문학적 기원을 찾는 로드 에세이다.

미당의 고향 질마재 마을은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라는 한국시의 명문장의 탄생지이자 시집 〈질마재 신화〉를 잉태한 곳이다. 질마재 마을에서 여정을 시작한 저자는 줄포, 곰소, 고창읍성, 선운사, 하전 개펄 등을 찾아가 시인에게 정신적·문학적 영향을 인연을 좇으며 서정주 문학의 기원을 탐색한다.

미당의 탄생지인 질마재 마을에선 시인의 외롭고 가난한 천성을 지니게 된 흔적을 더듬고, 칠산 바다에선 마음의 번뇌를 식히던 쓸쓸한 충만의 바다를 관조한다. 줄포와 고창에선 청소년 미당의 항일정신과 방황하던 질풍노도의 시기를 돌아보고, 선운사에서 처연한 동백의 붉은빛 낙화와 자신을 시인의 길로 인도한 석전 박한영과의 인연에 주목한다. 그리고 동리국악당에서 미당의 시가 도달한 전통의 세계가 가야금과 판소리로 이어진 전통 소리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저자가 훑어가는 미당의 지리적, 정신적 여정은 그대로 한 편의 시이고 감성으로 버무린 다큐멘터리이다. 저자는 스승 못지않은 아름다운 문장을 앞세워 미당의 시적 성취에 이르는 단단한 여정을 때로는 번민하는 시인의 마음으로, 때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철인(哲人)의 육성으로 영롱하게 색칠한다. 여기에 미당 시문학의 질감과 마음결을 헤아리듯 곳곳에 배치된 인상적인 사진들도 아름다운 시문학의 또 다른 절경이다.

이 책은 미당 문학정신의 기원을 찾아가는 입문서이기도 하다. 미당의 시를 탄생하게 만든 자연환경, 그가 만난 사람들과 그가 겪은 사건의 현장 탐방을 통해 명시 감상의 새로운 시각을 경험해 보도록 구성돼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읽고 책에서 언급된 현장을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한국 탐미시의 대가가 문학적 영향을 받은 지역과 인물을 찾아가는 인문교양 에세이답게 문장과 사진에서 빼어난 아름다움의 질감을 더한다. 저자의 질마재 마을과 고창 일대를 세심하게 훑어본 시적인 문장도 발군이지만, 여기에 더해 질마재 마을의 시적 운치를 더하는 장치로 고창 출신 사진 에세이스트 박성기의 사진도 빼놓을 수 없다.

수천 명의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사유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 준
특별한 '서양철학개론' 강의!

'지식'이 되는 철학에서 '지혜'가 되는 철학으로,
생각의 근육을 키워 주는 서양철학 24강!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서양철학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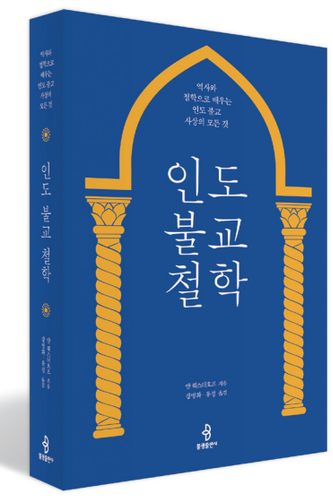
미네소타 주립대학
서양철학 강의

홍창성 지음
256쪽 | 18,000원

알면 알수록 흥미로워지는
불교의 세계, 광활한 사유의 지평을
이 한 권에 담았다!

2,600년 불교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황금시대
불교사 명장면들로 그려 낸 인도 불교철학의 정수!

역사와 철학으로 배우는
인도 불교 사상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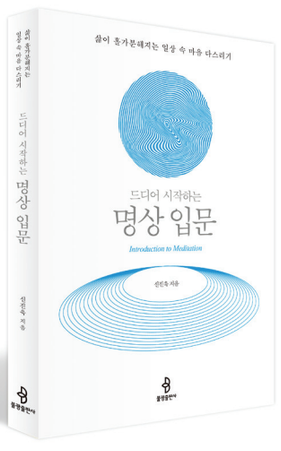
인도 불교 철학

얀 웨스터호프 지음
강병화·유경 옮김
600쪽 | 30,000원

명상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
명상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
단단한 마음의 코어 근육으로
삶이라는 바다에서 우아하게 서핑하기

삶이 홀가분해지는
일상 속 마음 다스리기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

Introduction to Meditation

신진욱 지음
232쪽 | 18,000원

명상 입문자들을 위한
저자 강연 진행

일시 2024. 12. 14.(토) 오후 3시
장소 명상센터 센터원 Center One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11)
접수 및 문의 불광출판사 010-3322-8940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